

다문화가족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관련 변인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Influencing Factors of Mother's Parenting Stress
with the Context of Multicultural Families*

이미란(Mi Ran Lee)¹⁾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factors which influence the degrees of parenting stress experienced by mothers within multicultural families. This study will provide basic data which can be used to develop services and programs for multicultural families. The data were collected utilizing questionnaires administered to 155 mothers of multicultural families. The data were analyzed by means of ANOVA, Pearson's correlation and multiple regression using the SPSS 18.0 program.

The results were as follows : Firstly, the educational level, self-esteem, depression, and marital satisfaction of the mother are factors that significantly influence a mother's parenting stress within the context of a multicultural family. Secondly, the mother's psychological factor, including her self-esteem and depression, and the mother's educational level were the clearest indicators for their relative level of their parenting stress.

Key Words : 다문화가족(multicultural families), 양육스트레스(parenting stress), 자아 존중감(self-esteem), 우울(depression).

* 본 논문은 2012년도 한국아동학회 추계 학술대회 포스터 발표 논문임.

¹⁾ 동양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Corresponding Author : Mi Ran Lee, Department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Dongyang University, Dongyangdae-ro, Punggi-eup, Yeongju-si, Gyeongsangbuk-do 750-711, Korea,
E-mail : mrlee@dyu.ac.kr

© Copyright 2013, The Korean Society of Child Studies. All Rights Reserved.

I. 서 론

최근 우리나라를 ‘다문화사회’로 일컫고 있는데, 이것은 1990년대 중반부터 동남아를 비롯한 외국 출신 여성과 한국인 남성 사이의 결혼을 중심으로 한 국제결혼이 사회적 현상으로 자리잡게 된 것에서 비롯되었다. 이후, 국제결혼은 급속히 증가하였으며 2,013년 현재 증가율은 다소 감소하였으나 전체 결혼건수의 9.3%나 되어 국제결혼은 하나의 결혼형태로 구분될 정도이며 국제결혼으로 형성된 다문화 가족도 한국의 여러 가족유형의 하나로 분류되고 있다(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2012).

다문화가족지원법에 의하면, 다문화가족은 가족원 가운데 법적인 한국인이 포함된 좁은 의미의 다문화가족, 국제결혼 가족만을 의미하고 있으므로 다문화가족을 최소한 한사람의 가족 구성원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로 한정한다. 다문화가족의 증가는 자연스럽게 다문화가족의 2세의 증가로 이어지면서 2,000년대 중후반부터 다문화가족의 자녀는 사회적 관심사로 부상하기 시작하였다. 2,012년 현재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자녀는 168,583명으로 2,011년 대비 11.5%나 증가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으며 외국인주민 자녀 중 62.1%가 만6세 미만의 미취학 아동으로 다문화가족 자녀의 상당수가 영유아기에 해당하는 아동이다. 다문화가족 자녀의 증가추세는 계속되어 2,020년에는 영유아의 규모가 현재의 약 2배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다(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2012). 점점 비중을 더해 가는 다문화가족 자녀들이 학령기에 접어들어 학교 부적응, 학습부진 등의 문제를 드러내면서 다문화가족의 자녀양육이 우리사회에서 주요 이슈로 대두되고 다문화가족의 문제를 최우선의 해결과제로 고려하

는 계기가 되었다(Choe, 2009; Song, Shin, & Lee, 2008). 다문화가족도 다른 영역의 서비스보다 자녀양육·학습지원에 대한 서비스(62.7%)를 더욱 우선적으로 요구하고 있다(Kim, 2010).

이에 따라 결혼이주여성의 결혼 및 생활만족에 관한 연구, 문화적응과 관련한 주제가 대부분이었던 다문화가족 연구가 최근에는 다문화가족의 자녀양육 주제를 다루기 시작하였다. 다문화가족 어머니의 자녀양육에 대한 지각(Kang, & Sohn, 2011), 어머니의 양육태도(Kim, Lim, & Jung, 2008),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Kim, 2009; Lee, & Lee, 2010; Seo, Lim, & Lee, 2010), 그리고 아버지의 자녀양육 참여(Lee, 2007) 등 다문화가족의 자녀양육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다문화가족의 결혼이주여성은 비교적 어린 나이에 충분한 준비 없이 임신과 출산의 과정을 거치면서 자녀양육에 많은 어려움을 갖게 되었다. 한국어 구사능력의 부족으로 자녀와의 의사소통, 상호작용이 제한되고 그로 인해 자녀의 학습지도의 어려움을 가지며 동시에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양육비 부담, 자녀양육의 주요한 지원체계인 남편의 양육참여 부족, 자녀의 출산과 양육에 대한 정보와 지원체계 부족, 양육과 관련된 문화적 차이 등으로 다문화가족의 어머니들은 한국인 어머니와는 또 다른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Jang, 2009; Kim, Kim, & Shin, 2007; Kwon, 2006; Park, 2010). 이와 같이 다문화가족 어머니에게는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서 자녀양육이 매우 어려운 과제이며, 결과적으로 그들의 자녀가 발달적 결함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다문화가족의 부모와 자녀는 문화적응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삶의 변화에 적응해야 하는 상황에 동시에 처하게 되는 어려운 국면에 놓이게 된다(Jang, 2009). 다문화가족 자녀

가 건강하게 성장발달하고 다문화가족 어머니가 부모역할을 좀 더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를 완화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과 지원을 강구해야 한다. 이에 결혼이주여성 어머니의 자녀양육스트레스에 대한 연구가 요구되며, 특히 인생 전반 발달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시기인 유아기의 자녀를 둔 어머니의 자녀양육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유아기 자녀를 둔 다문화가족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를 집중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양육스트레스는 부모가 자신의 부모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지각하는 스트레스로서 Abidin(1992)에 의해 개념화 되었다. 부모가 지각하는 양육스트레스는 부모 자신의 상황이나 자녀양육이 기대와 부합되지 않을 때, 이와 관련된 경험이 스트레스로 평가되어 부모자신에 의해 만들어지고(Abidin, 1990), 부모가 느끼는 양육스트레스는 다시 부모의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다. 부모가 지각하는 양육스트레스는 부모 자신의 심리적인 복지감에는 물론, 자녀에 대한 태도, 자녀와의 상호작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서 양육스트레스가 높을수록 강압, 거부, 통제와 같은 부정적인 양육행동을 더 많이 하고(Ahn, 2001), 결국 자녀의 발달적 결함(Kim, & Moon, 2005)을 이끌며 부모-자녀 관계의 질을 손상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증거가 제시되면서 양육스트레스는 자녀양육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간주되었고,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밝히려는 연구가 일반 가정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활발히 이루어졌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에서 제시하는 양육스트레스 관련 요인들과 다문화가족 어머니의 인구사회학적 배경요인들이 다문화가족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어떤 요인이 다문화가족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인지 확인하고자 한다. 양육스트레스를 Kim과 Kang(1997)은 자녀를 양육하는 일상생활 장면에서 직면하는 일상적 스트레스, 부모역할 수행에 대한 심리적 부담감과 부모가 인지하는 어려움을 반영하는 부모역할에 대한 부담감과 디스트레스, 어머니가 취업을 하여 자녀를 타인이 양육하는 상태에서 직장생활을 해야 하는 어려움을 반영한 타인양육에 대한 죄책감 등으로 구분하여 다루었는데, 본 연구에서는 좀 더 일반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부모역할에 대한 부담감과 디스트레스를 중심으로 양육스트레스를 다루고자 한다.

Abidin(1992)는 어머니가 자녀를 양육하면서 스트레스를 지각할 때, 사회적 지원이나 배우자와의 협력을 시도하고 자신의 개인적 자원을 스트레스 대처자원으로 활용한다고 하였다.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우선적인 요인은 자녀양육을 담당하는 어머니의 심리적 특성이다. 어머니의 심리적 특성 중 자아존중감은 자아에 대한 평가적인 측면으로서(Pope, MacHale, & Craighead, 1988) 개인이 자기 스스로에 대한 생각, 판단과 관련된 개념이다(Rosenberg, 1979, 1986). 즉 자신에 대한 태도, 자신의 가치에 대한 자기 판단으로서 자기 자신을 유능하고 성공적이며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존재라고 믿는 정도이다. 자아존중감은 주변 환경을 받아들이고 해석하여 자신의 행동방향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어머니의 자녀에 대한 관점, 양육태도 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양육행동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자아존중감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심리적 기능에 영향을 주어 스트레스를 중재할 수 있으므로, 자아존중감이 높은 어머니는 양육에서의 어려움을 긍정적으로 해

석하여 양육스트레스를 덜 지각할 것이다. 두 번째 심리적 특성으로 어머니의 우울을 다루고 있는데, 우울은 불안, 슬픔, 분노 등 복합적인 부정적 정서가 혼합된 상태(Lazarus, & Folkman, 1987)로서 부모의 양육태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우울한 어머니는 자녀에게 반응을 적게 하고(Cox, Puckling, Pound, & Mills, 1987) 비일관적인 양육행동을 보이며 강압적이고 통제방법을 자주 사용하게 되어 자녀의 심리, 사회적 행동 부적응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그리고 우울성향이 강한 어머니가 불안이나 양육스트레스를 더욱 강하게 느낀다고 한다(Koh, 1994; Park, Doh, & Chung, 1996).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배우자 관련 특성이 있다. 배우자인 남편이 자녀양육에 참여함으로 자녀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어머니의 양육부담을 덜어 줄 수 있다. 남편이 정신적인 지지자의 역할을 하여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고 배우자에 대한 만족감도 높아진다고 한다(Kim, Yang, & Sung, 2013; Nam, & Lee, 2011). 또 다른 배우자 관련 특성인 결혼만족의 정도는 부모 자신의 생활뿐만 아니라 자녀양육태도에 영향을 주어 자녀의 성장발달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결혼만족도가 높을수록 양육스트레스는 줄고 애정적 양육행동을 보인다고 한다(Leaper, 2002).

인구사회학적 변인이 양육스트레스를 예측할 수 있는 요인인지를 규명하려는 연구도 계속 진행되고 있다. 양육스트레스와 관련하여 빈번히 다루는 인구사회학적 변인은 어머니의 출신국가, 연령, 학력, 거주기간, 수입 등인데 각 변인 수준에 따른 양육스트레스 차이에 대한 결과는 일치하지 않아 이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요구된다.

Belsky(1984)가 부모의 양육스트레스에 영향

을 미치는 요인으로 부모의 심리적 자원, 자녀의 특성, 양육지원 등 세 가지 요인을 제시하고 있듯이 부모의 양육스트레스는 한 가지 요인보다 다양한 변인과 관련되어 있으나, 기존의 연구들은 하나 혹은 두 가지의 변인만을 다루면서 양육스트레스와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다. 최근에 한국아동패널 사업으로 광범위한 자료에 대한 접근이 가능해지자 양육스트레스에 통합적으로 접근하려는 시도가 나타나고 있다(Kwon, 2011; Ok, & Chun, 2012; Sohn, 2012).

한편, 다문화가족 어머니의 자녀양육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다문화가족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관한 연구(Jung, & Chung, 2011; Kim, 2009; Roh, 2011; Seo, Kim, & Kim, 2008)가 소수 진행되고 있는 것은 고무적 현상이지만 이 연구들은 양육스트레스 관련 변인을 종합적으로 다루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족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 기대되는 어머니 개인의 심리적 특성 요인, 배우자 관련 특성요인 그리고 인구사회학적 변인을 포함하여 다문화가족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관련 변인들을 탐색하고 관련 변인의 상대적 영향력을 규명하고자 한다. 어머니의 심리적 특성요인으로는 어머니의 자아존중감, 우울 등, 배우자 관련 특성요인으로는 남편의 자녀양육에의 참여정도와 결혼만족도를 포함한다. 다문화가족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과 그들의 영향력을 조사하는 본 연구의 결과는 다문화가족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를 완화하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정책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로서 제공될 수 있을 것이다.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는 자녀의 발달을 예측할 수 있는 중요한 변인이므로 자녀양육에 많은 어려움을 갖는 다문화가족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그러한 스

트레스에 대한 대처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다문화가족 부모의 효과적인 자녀양육과 자녀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위해서 매우 필요한 과제이다.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다문화가족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심리적 특성(자아존중감, 우울), 배우자 관련 특성(배우자 양육참여, 결혼만족도)은 어떠한가?

1-1. 다문화가족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심리적 특성(자아존중감, 우울), 배우자 관련 특성(배우자 양육참여, 결혼만족도)은 어느 정도인가?

1-2. 인구사회학적 변인에 따라 다문화가족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심리적 특성, 배우자관련 특성은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 다문화가족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어머니의 심리적 특성 및 배우자관련 특성과의 관계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3> 다문화가족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의 상대적 영향력은 어떠한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한국인 남성과의 국제결혼을 통해 국내에서 다문화가족을 이룬 결혼이주여성으로서 유아기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다문화가족 어

머니를 대상으로 하였다. 경상북도 내 안동, 영주, 예천, 의성, 청송, 포항 지역의 유아교육 기관 혹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해 연구대상을 편의표집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은 다문화가족의 어머니로서 유아기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결혼이주여성으로 제한하였다. 자료를 수집한 결과, 총 155명의 다문화가족 어머니가 본 연구의 대상이었으며 연구대상인 결혼이주여성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2. 연구도구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족 어머니를 대상으로 인구사회학적 변인과 함께 양육스트레스를 조사하고, 어머니 심리적 특성 중 자아존중감, 우울변인, 배우자 관련 특성으로 남편의 양육참여, 결혼만족도 등의 변인을 측정하였다. 이와 같은 변인측정을 위해 질문지를 제작하여 연구도구로 사용하였으며 한국어로 제작한 질문지는 중국,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어로 번역하였다. 번역작업을 거쳐 감수를 받아 질문지를 완성하였다.

측정도구인 질문지에 포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자아존중감, 우울, 결혼만족도 등의 측정을 위해 한국아동패널(Lee, 2010)의 어머니 대상 척도를 참고로 하였다.

1) 인구사회학적 변인

본 연구의 대상자의 일반적인 배경을 파악하기 위해서 그리고 양육스트레스 관련 변인을 밝히기 위해서 연구대상의 인구사회학적 변인을 조사하였다. 연구대상인 결혼이주여성의 연령, 학력, 출신국가, 한국 거주기간, 그리고 가정의 월수입 등을 인구사회학적 변인으로 조사하였다.

2) 양육스트레스

양육스트레스 측정을 위한 도구는 Kim과 Kang (1997)이 Abidin(1990)의 Parenting Stress Index-Short Form(PSI-SF)를 한국형으로 개발한 ‘양육스트레스 척도’ 중 부모역할 수행에 따른 심리적 부담감과 부모가 인지하는 어려움을 측정하고 있는 ‘부모역할에 대한 부담감 및 디스트레스’ 영역의 척도를 기초로 하였다. 한국아동패널 예비조사 과정에서 사용한 10문항을 사용하였고, 본 연구 예비조사 과정에서 결혼이주여성인 어머니들이 ‘아이를 더 친근하고 따뜻하게 대해야 한다는 것이 어렵게 여겨진다’의 항목을 스트레스의 내용으로 해석하기보다 부모양육태도로 해석하여 반

응하는 것을 발견하여 이 문항을 제외하고 총 9개의 문항(예 : ‘아이를 잘 키울 수 있을지 자신이 없다’)으로 양육스트레스를 측정하였다. 각 문항은 1점(전혀 그렇지 않다)부터 5점(매우 그렇다)까지의 5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녀양육에 관한 스트레스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척도의 내적합치도 계수(Cronbach α)는 .88로 나타났다.

3) 어머니의 심리적 특성

(1) 자아존중감

결혼이주여성의 자아존중감은 Rosenberg(1986)의 자아존중감 척도(Rosenberg Self-Esteem Scale)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the participants (N = 155)

Classification		N(%)
Country	China	27 (17.4)
	Japan	8 (5.2)
	Vietnam	105 (67.7)
	Philippine	10 (6.5)
	Cambodia	5 (3.2)
Age	20 to 25	50 (32.3)
	26 to 30	65 (41.9)
	31 to 35	23 (14.8)
	36 to 40	11 (7.1)
	41 to 45	6 (3.9)
Level of education	Elementary school	31 (20.0)
	Middle school	34 (21.9)
	High school	67 (43.2)
	University	23 (14.8)
Residence period	1 to 3 years	41 (26.5)
	4 to 6 years	86 (55.5)
	More Than 7 years	28 (18.1)
Monthly household income	Less than 1,000,000	36 (24.3)
	1,000,000 to 2,000,000	75 (50.7)
	2,000,000 to 3,000,000	22 (14.9)
	More than 3,000,000	15 (10.1)

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총 10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은 1점(전혀 그렇지 않다)로부터 4점(매우 그렇다) 중에서 평정하는 Likert 척도형식이다. 그러나, 다문화가족 어머니를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공통적으로 '나 자신을 좀 더 존중할 수 있으면 하고 바란다'의 항목내용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여서 그 문항을 제외한 9개 문항(예: '내가 좋은 자질, 장점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느낀다')으로 자아존중감을 측정하였다. 부정적으로 진술된 4개의 문항(예: '대체로 내가 실패자라고 느끼는 경향이 있다')을 역으로 채점하고,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이라고 해석한다. 척도의 내적합치도 계수(Cronbach α)는 .79로 산출되었다.

(2) 우울

부정적 심리적 특성인 우울을 측정하기 위해 Kessler 등(2002)이 일반인 대상 정신건강 측정을 위해 개발한 Kessler의 우울척도(K6)를 사용하였다. 우울 측정문항은 6문항(예: '지난 한달 동안 불안하십니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의 형식은 1점(전혀 안 느낌)부터 5점(항상 느낌) 중에서 평정하는 5점 Likert 척도형식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 정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 척도의 신뢰도 계수(Cronbach α)는 .88로 나타났다.

4) 배우자 관련 특성

(1) 남편의 양육참여

남편의 자녀양육에의 참여도를 측정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의 양육참여를 측정할 수 있도록 Choi(1992)가 개발한 아버지 양육참여도 척도를 참고하여 도구를 제작하였다. 아버지 양육참여도 척도 문항

중 여가활동 참여, 생활지도 참여, 가사활동 참여, 인지적 성취지도 참여 등에 대한 아버지의 양육참여도를 측정하기 위한 4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각 문항은 1점(전혀 하지 않는다)에서부터 5점(매우 그렇다)까지 5점 Likert 척도의 형식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남편이 자녀양육에 많이 참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문항 간 신뢰도 계수(Cronbach α)는 .76으로 산출되었다.

(2) 결혼만족도

결혼이주여성의 결혼만족도는 KMSS(Schmm, Nicols, Schectman, & Grigsby, 1983)를 Chung (2004)이 우리나라 문화에 맞게 수정한 RKMSS (Revised-Kansas Marital Satisfaction Scales)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이 도구는 배우자로서의 남편, 아버지로서의 남편, 남편과의 관계, 결혼 생활 전반에 대한 만족정도를 묻는 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은 1점(매우 불만족)에서 5점(매우 만족)까지 5점 Likert 척도형식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결혼만족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 문항의 내적합치도 계수(Cronbach α)는 .91로 나타났다.

3. 연구절차

1) 예비조사

제작한 질문지의 적절성을 알아보기 2011년 9월 중에 중국출신 2명, 일본출신 1명, 베트남출신 2명, 필리핀 출신 1명, 캄보디아 출신 1명 등 총 7명의 다문화가족 어머니를 개별적으로 만나 각 국가별 언어로 제작한 질문지를 실시하였다. 질문지를 완성한 후 질문지에 대해서 면담한 결과를 반영하여 부적합하거나 이해가 되지 않는 문항과 어휘를 수정·보완해서 본 조사에 사용할 최종 질문지를 확정하였다.

2) 본조사

본 조사는 예비조사를 통해 수정·보완한 질문지를 사용하여 2011년 10월에서 12월 사이에 진행하였다. 본 조사의 연구대상은 경상북도 안동, 영주, 예천, 의성, 청송, 포항 지역의 자녀가 다니는 유아교육기관 또는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를 통해 편의적 표집하였다. 이 때 유아기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다문화가족의 결혼이주여성 어머니로 연구대상을 제한하여 조사하였다. 각 기관을 통해 다문화가족 어머니에게 질문지를 배부하였으며 어머니가 응답한 후에 각 기관을 통해 회수하는 방법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연구자료는 174부가 수집되었으나 누락된 응답내용 부분이 많은 질문지를 제외하여 최종적으로 총 155명이 응답한 질문지를 분석하였다.

4.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한 자료는 SPSS 18.0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의 인구사회학적 배경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고 주요변인들에 대한 기술통계를 얻기 위하여 각 변인들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도구의 신뢰도를 측정하기 위해 Cronbach α 값을 산출하였다. 인구사회학적 변인에 따라 연구의 주요변인이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일원변량분석을 하였고 Scheffé 검증으로 사후 집단간 차이를 분석하였다. 양육스트레스의 관련 변인을 조사하기 위해 양육스트레스와 제 측정변인 간의 Pearson의 적률상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양육스트레스와 유의하게 상관이 있는 변인의 영향력을 조사하기 위해 단계별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III. 연구결과 및 해석

1. 측정변인의 일반적 경향

본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측정변인이 다문화가족 어머니에게서 어떠한 경향이 있는지 조사하기 위해 각 변인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으며 그 결과는 Tabel 2의 하단에 제시하였다.

다문화가족 어머니의 자아존중감은 5점 만점에 평균 3.09로 산출되어 중간 정도이었고 우울 점수는 5점 만점에 평균 2.37로 결과 되어 중간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편의 양육참여는 3.42(3.64). 결혼만족도는 3.65(3.87)의 점수가 산출되었다. 마지막으로 다문화가족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는 5점 최고점에 2.72의 점수를 보여 보통 수준보다 낮게 나타났다.

2. 인구사회학적 변인에 따른 측정변인의 차이

각 인구사회학적 변인의 수준에 따라 본 연구에서 측정한 주요변인이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Table 2와 같다.

다문화가족 어머니의 출신국가, 연령, 학력, 한국 거주기간, 가정의 월수입 등 각 인구사회학적 변인에 따라 다문화가족 어머니의 자아존중감, 우울, 남편의 양육참여, 결혼만족도 그리고 양육스트레스가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였다. 다문화가족 어머니의 자아존중감은 인구사회학적 변인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 어머니의 우울정도는 한국 거주기간에 따라 유의한 차이($F = 4.60, p < .05$)가 나타나서 사후검증 결과, 한국에서 거주한 기간이 1년에서 3년 된 어머니가 7년 이상 된 어머니보다 우

<Table 2> ANOVA of self-esteem, depression, father's child-rearing involvement, marital satisfaction and parenting stress

		Self-esteem		Depression		Father's child-rearing involvement		Marital satisfaction		Parenting stress	
		M(SD)	F (Scheffé)	M(SD)	F (Scheffé)	M(SD)	F (Scheffé)	M(SD)	F (Scheffé)	M(SD)	F (Scheffé)
Country	China	3.12(0.54)		1.94(0.82)		3.69(0.98)		3.63(0.84)		2.70(0.72)	
	Japan	3.18(0.28)		1.83(0.41)		3.22(0.89)		4.25(0.71)		2.69(0.30)	
	Vietnam	3.06(0.41)	0.87	2.49(0.94)	2.84	3.33(0.99)	1.11	3.52(1.05)	2.66	2.76(0.74)	1.00
	Philippine	3.29(0.49)		2.62(1.33)		3.75(1.11)		4.20(0.92)		2.28(0.96)	
	Cambodia	2.93(0.58)		2.50(0.51)		3.30(0.33)		4.40(0.89)		2.80(0.88)	
Age	20 to 25	3.08(0.66)		2.40(0.93)		3.38(1.01)		3.66(1.14)		2.63(0.69)	
	26 to 30	3.06(0.39)		2.44(0.90)		3.40(0.89)		3.57(0.95)		2.84(0.71)	
	31 to 35	3.07(0.48)	0.86	2.23(1.13)	0.38	3.65(1.03)	1.11	3.57(0.95)	0.87	2.73(0.93)	0.98
	36 to 40	3.32(0.54)		2.23(1.08)		3.57(1.17)		4.00(1.00)		2.58(0.84)	
	41 to 45	3.11(0.33)		2.14(0.54)		2.75(1.18)		4.17(0.75)		2.41(0.50)	
Level of education	Elementary school(a)	2.93(0.42)		2.56(1.05)		3.34(0.79)		3.61(1.02)		2.99(0.77)	
	Middle school(b)	3.04(0.39)	2.34	2.44(0.80)	0.88	3.21(1.15)	0.93	3.41(0.99)	0.97	2.82(0.74)	3.98** (a>d)
	High school(c)	3.16(0.43)		2.32(0.91)		3.53(0.96)		3.76(1.05)		2.67(0.68)	
	University (d)	3.17(0.50)		2.17(1.08)		3.50(1.05)		3.74(0.92)		2.34(0.74)	
Residence period	1 to 3 years (a)	3.10(0.39)		2.59(0.88)		3.42(1.00)		3.76(1.04)		2.71(0.78)	
	4 to 6 years (b)	3.05(0.46)	1.13	2.41(0.95)	4.60* (a>c)	3.40(0.99)	0.05	3.58(1.02)	0.48	2.78(0.75)	1.08
	More than 7 years (c)	3.19(0.44)		1.92(0.87)		3.46(0.99)		3.71(0.94)		2.54(0.64)	
Monthly household income	Less than 1,000,000	3.06(0.46)		2.55(1.07)		3.33(0.90)		3.32(0.87)		2.78(0.79)	
	1,000,000 to 2,000,000	3.09(0.44)	1.09	2.35(0.88)	1.06	3.38(0.97)	0.76	3.67(0.94)	2.62	2.73(0.74)	0.15
	2,000,000 to 3,000,000	3.05(0.23)		2.18(0.74)		3.63(0.84)		3.76(0.81)		2.74(0.77)	
	More than 3,000,000	3.28(0.52)		2.13(0.96)		3.65(1.21)		4.03(0.91)		2.63(0.52)	
Total	3.09(0.44)		2.37(0.94)		3.42(0.99)		3.65(1.01)		2.72(0.74)		

* $p < .05$. ** $p < .01$.

울점수가 유의하게 높았다. 배우자 관련 특성으로서 남편의 양육참여, 결혼만족도는 어머

니의 인구사회학적 변인수준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다문화가족 어머니의 양육스

트레스는 어머니의 학력에 따라 차이($F = 3.98, p < .01$)가 있었으며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과, 초등학교 졸업한 어머니가 대학졸업 한 어머니보다 양육스트레스가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각 인구사회학적 변인 수준에 따라 측정변인이 차이가 있는지 분석한 결과, 다문화가족 어머니의 한국 거주기간이 짧을수록 우울정도가 높았으며 특히, 1-3년 거주한 어머니가 7년 이상 거주한 어머니보다 우울점수가 높았다. 다문화가족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는 어머니의 학력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 학력이 높을수록 양육스트레스가 적었으며 특히, 대학을 졸업한 어머니가 초등학교 졸업한 어머니보다 양육스트레스가 적었다.

3. 다문화가족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측정 변인 간의 관계

다문화가족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어머니의 심리적 특성 요인, 그리고 배우자 관련 특성 요인 사이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결혼이주 여성의 심리적 특성요인 중 자아존중감과 우울, 배우자관련 특성요인 중 남편의 양육참여, 결혼만족도 등의 측정변인과 다문화가족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의 Pearson 적률상관분석을 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Table 3에서와 같이 다문화가족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는 어머니 심리적 특성요인 중 자아존중감($r = .45, p < .001$), 배우자관련 특성 중 결혼만족도($r = .23, p < .01$)와 유의한 부적 상관이 있는 반면, 어머니의 심리적 특성요인 중 우울변인($r = .37, p < .001$)과는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었다. 그러므로 유아기자녀를 둔 다문화가족의 결혼이주여성 어머니의 경우, 어머니의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그리고 결혼만족도가 높을수록 양육스트레스가 낮았으나 어머니의 우울정도가 높을수록 양육스트레스는 높았다. 그리고 배우자관련 특성 중 남편 양육참여는 다문화가족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4. 다문화가족 어머니 양육스트레스 관련 변인의 상대적 영향력

다문화가족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관련 변인들이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 보기 위해 단계별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때, Table 2의 분석결과에서 인구사회학적

<Table 3> Correlation among research variables

	Self-esteem	Depression	Father's child-rearing involvement	Marital satisfaction	Parenting stress
Self-esteem					
Depression	-.35***				
Father's child-rearing involvement	.29***	-.17*			
Marital satisfaction	.29***	-.31***	.55***		
Parenting stress	-.45***	.37***	-.04	-.23**	

* $p < .05$. ** $p < .01$. *** $p < .001$.

<Table 4> Multiple regression of relating variables on parenting stress

		<i>B</i>	β	<i>t</i>	<i>R</i> ²	ΔR^2	<i>F</i>
Step 1	Self-esteem	-.76	-.45	-6.20***	.20	.20	38.41***
Step 2	Self-esteem	-.61	-.36	-4.84***	.25	.05	25.70***
	Depression	.19	.24	3.25**			
Step 3	Self-esteem	-.56	-.33	-4.45***	.28	.03	19.47***
	Depression	.18	.23	3.14**			
	Level of education	.13	-.17	-2.34*			

p* < .05. *p* < .01. ****p* < .001.

변인 중 어머니 학력에 따라 양육스트레스가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므로 관련 변인으로 어머니 개인적 심리적 특성, 배우자 관련 특성 외에 어머니의 학력 변인을 포함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기 전에 독립변인들 사이의 다중공선성을 알아보기 위해 상관관계(Table 3 참조)를 조사한 결과, *r* = .60 이상 되는 상관이 없었으며 분산팽창인자(VIF)가 1.10~1.30 으로 산출되어 기준치인 10을 넘지 않으므로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계별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단계별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Table 4와 같이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3단계의 회귀모형이 결과 되었다. 1단계 회귀모형에서는 다문화가족 어머니의 자아존중감이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며 양육스트레스에 대한 설명력이 20% 인 것으로 나타났다($R^2 = 20, p < .001$). 2단계 회귀모형에서는 어머니의 자아존중감과 함께 어머니의 우울이 추가되었으며 두 변인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전체 변량 중 25%를 설명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는데($R^2 = 25, p < .001$), 1단계에 비해 5%의 설명력이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3단계 회귀모형에서는 어머니의 자아존중감, 우울변인

과 함께 어머니 학력이 추가되었으며 학력변인 추가와 함께 3%의 설명력이 유의하게 증가하여 양육스트레스 전체변량에 대해 28%의 설명력($R^2 = 28, p < .001$)을 나타내었다. 이 회귀모형에서 자아존중감의 영향력은 $\beta = -.33(p < .001)$, 우울의 상대적 영향력은 $\beta = .23(p < .01)$, 학력의 상대적 영향력은 $\beta = -.17(p < .05)$ 이므로 다문화가족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어머니의 자아존중감, 우울, 학력이며 그 중 어머니의 자아존중감이 양육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예언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다음 어머니의 우울, 학력의 순으로 양육스트레스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I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다문화가족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관계가 있는 변인을 조사하고자 하였다. 연구자료를 분석하여 얻은 결과를 중심으로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각 주요 측정변인이 어느 정도인지 조사하였다. 다문화가족 어머니의 자아존중감은 5점 만점에 평균 3.09로 산출되

어 중간 정도 수준을 보였다. 동일한 측정도구로 영아기 자녀를 둔 일반 한국인 어머니의 자아중감을 측정한 한국아동패널의 결과가 약 3.08 (Song, Lee, & Kim, 2011)이므로 다문화가족 어머니와 일반 한국인 어머니와 비슷한 수준의 자아존중감을 보이고 있었다. 다문화가족 어머니의 우울점수는 5점 만점에 평균 2.37로 산출되어 중간보다 낮은 것으로 결과 되었지만 한국아동패널의 일반가정 한국어머니의 우울 점수 결과인 1.83과 비교해 볼 때, 다문화가족 어머니의 우울 점수가 더 높았다. 이것은 다문화가족 어머니의 우울 수준이 일반 한국인 어머니의 우울수준보다 높게 나타난 Lim과 Lee(2010)의 연구결과와 맥락을 같이 하고 있는데, 다문화가족 어머니는 즐거움과 자신감의 결여, 그리고 자신이 가족이나 사회에 유용하게 쓸모 있는 존재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자기 유용성과 미래에 대해서 비관적 시각을 하는 경향이 있어 한국인 어머니보다 우울감이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문화가족 어머니의 이러한 우울의 결과는 그들이 한국사회에서 자신에 대한 정체성,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고 살아가는데 어려움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Lim, & Lee, 2010).

다문화가족의 남편 양육참여는 3.42로 산출되어 ‘중중한다’의 수준 보다 조금 높게 나타났으나 한국아동패널 결과인 3.64보다는 낮았다. 다문화가족의 어머니는 부족한 한국어 능력과 문화적 차이 등으로 자녀양육에 큰 어려움을 가지므로 자녀양육에 있어 배우자인 남편의 참여가 더욱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한국여성 아내의 남편 보다 자녀양육참여가 낮은 연구결과에 기초하여 볼 때, 다문화가족의 한국인 아버지를 대상으로 하는 부모교육이 더욱 절실하다. 한편, 다문화가족 어머니

의 결혼만족도는 3.65로 산출되어 ‘보통’ 보다는 높고 ‘대체로 만족한다’ 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일반가정 한국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한국아동패널에서는 결혼만족도가 3.87로, 본 연구 대상의 결혼만족도가 더 낮았다. 이것은 다문화가족 아버지의 자녀양육 참여가 비교적 낮은 결과와 관련지어 해석할 수 있다. 실제로 Table 3의 상관분석 결과에 의하면, 다문화가족 아버지의 자녀양육참여와 어머니의 결혼만족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으므로 남편의 자녀양육에의 참여도가 높아진다면 다문화가족 어머니의 결혼만족도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다문화가족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는 5점 최고점에 2.72의 점수를 보여 보통 수준보다 낮게 나타났다. 같은 도구를 사용하여 다문화가족 어머니의 부모역할 부담감과 디스트레스를 측정하는 Kim(2009)에서는 본 연구와 같이 2.72의 결과를 보였다. 한국아동패널의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는 2.63정도이어서 다문화가족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다문화가족 어머니와 일반가정 한국인 어머니를 모두 포함하여 비교 연구한 선행연구(Kwak, 2008; Lim, & Lee, 2010)에서도 나타나 다문화가족의 결혼이주여성이 일반가정의 한국인 어머니보다 높은 양육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문화가족의 결혼이주여성 어머니는 한국어 능력의 부족, 양육정보의 제한 그리고 교사나 학부모와의 관계형성의 어려움 등, 일반 가정의 한국인 어머니와 다른 독특한 경험(Kim, 2007; Chang, 2010)으로 자녀양육에 대한 스트레스가 더 높을 수밖에 없다.

둘째, 다문화가족 어머니의 인구사회학적 변인 수준에 따라 주요 측정변인이 차이가 있는

지 조사하였다. 어머니의 연령, 출신국가, 학력, 한국 거주기간, 가정의 월수입 등의 인구사회학적 변인을 포함하여 분석한 결과, 다문화가족 어머니의 한국 거주기간에 따라 우울 수준이 차이가 있었다. 즉, 한국 거주기간이 짧을수록 우울정도가 높았는데 특히, 1-3년 거주한 어머니가 7년 이상 거주한 어머니보다 우울점수가 높았다. 결혼이주여성은 새로운 문화적 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과제로 스트레스를 경험하는데 한국거주기간이 짧을수록 이러한 문화적응 과업에 대한 심한 심리적 부담을 갖게 되므로 우울수준이 높을 수 있다. 그러므로 한국으로 이주한 초기 몇 년 동안은 결혼이주여성이 우울을 덜 경험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과 배려를 해야 한다. 사회적 지지 수준이 높을수록 우울 수준이 낮으므로(Jun, Min, Lee, & Choi, 2009) 결혼이주여성의 가족구성원은 물론, 그 밖의 지역사회 구성원을 포함한 다양한 교육 또는 지원프로그램에서도 이를 고려한 내용이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다문화가족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는 어머니의 학력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 학력이 높을수록 양육스트레스가 적었으며 특히, 대학을 졸업한 어머니가 초등학교 졸업한 어머니보다 양육스트레스가 낮았는데 이에 관해서는 세 번째 논의에서 다루고자 한다.

자아존중감, 남편의 양육참여, 결혼만족도 등의 측정변인은 인구사회학적 변인 수준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인구사회학적 변인 중 어머니의 연령도 각 측정변인의 차이를 이끌지 못하였으며 출신국가, 월수입에 따라서도 측정변인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본 연구에서는 출신국가에 따라 양육스트레스 등이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것은 어머니의 출신국가에 따라 양육스트레스가 차

이가 있다고 보고하면서 베트남 여성이 필리핀이나 일본여성 보다 양육스트레스가 높다고 밝힌 연구(Kim, Kim, & Shin, 2007)와는 일치하지 않는 결과이다. 이렇듯 출신국가에 따른 양육스트레스 차이에 대한 불일치되는 결과가 나타나는 이유 중의 하나는 양육스트레스의 측정요인의 차이 때문일 수 있는데 각 연구마다 양육스트레스를 측정하는 요인이 다르므로 각 연구결과를 단순하게 비교하기 어렵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각 변인수준별 사례수가 너무 차이가 있기 때문에 분석결과, 학력 변인 이외에 연령, 출신국가, 거주기간, 수입 등의 인구사회학적 변인이 양육스트레스와 유의미한 관계가 없다고 단언하기 어려우므로 좀 더 체계적인 연구가 요구된다.

셋째, 다문화가족 어머니 양육스트레스의 관련 변인을 조사하기 위해 상관분석을 한 결과, 결혼이주여성인 어머니의 심리적 특성 중 자아존중감과 우울, 그리고 배우자관련 특성 중 결혼만족도 등이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사회학적 변인 중에서는 어머니의 학력에 따라서 양육스트레스가 차이가 있었다. 즉, 어머니의 자아존중감과 그리고 결혼만족도, 학력이 높을수록 양육스트레스를 덜 경험하며 어머니의 우울정도가 높을수록 양육스트레스도 더 높았다.

다문화가족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관련 변인으로 어머니의 학력과 자아존중감이 결과 된 것은 두 변인 모두 어머니 자신에 대한 지각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학력이 높은 어머니는 자아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나타났다는 연구결과(Kim, & Kim, 2012)에 기초하여, 학력이 높은 결혼이주여성은 자신을 긍정적으로 지각할 것이며 자신의 능력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유추할 수 있다. 자신에 대한 긍정적 지각이 스트레스에 잘 대처할 수 있는 자원으로 기능하여 실제로 양육스트레스를 낮추는 요인이 될 수 있다.

한편, 배우자 관련 특성요인 중 결혼만족도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배우자와의 관계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변인이라는 주장(Crinic, & Acevedo, 1996)을 뒷받침하는 반면, 또 다른 배우자 관련 특성인 남편의 양육참여 정도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상관이 없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배우자의 지지가 어머니의 우울 또는 자아존중감과 상관이 있으며 배우자의 지지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에 높은 우울감과 낮은 자아존중감을 보인다는 선행연구(Vanfossen, 1981)의 결과로 미루어 볼 때, 남편의 양육참여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직접적인 상관이 없다하더라도 어머니의 우울, 자아존중감, 결혼만족도와 관계하여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본 연구 결과에서도 남편의 양육참여는 어머니의 우울, 자아존중감, 결혼만족도 등의 세 변인과 유의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3 참조).

다문화 가족의 한국인 아버지의 자녀양육에의 참여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 본 연구의 결과는 남편의 양육참여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으로 나타나는 일반 가정의 어머니 대상으로 한 연구(Abidin, 1992; Kim, Yang, & Sung, 2013; Nam, & Lee, 2011)와는 다른 결과이다. 이러한 차이는 어머니의 양육환경의 차이로 해석할 수 있다. 일반 가정의 어머니는 주로 핵가족, 또는 맞벌이 가족의 가족형태 안에서

부부 중심으로 자녀를 양육하기 때문에 배우자의 자녀양육에의 공동참여가 양육스트레스를 덜 갖게 되는 필수적인 요인이 되는 반면, 다문화가족의 결혼이주 여성은 이주민이기 때문에 한국인 어머니보다 자녀양육에 있어서 배우자 외의 다른 사회적 자원을 더욱 필요로 하며 확대가족내의 다른 가족구성원, 또는 지역사회 등의 다양한 사회적 지원에 의존하여 자녀를 양육하기 때문일 것이다. 이것은 농촌 지역 결혼이주여성의 양육스트레스가 사회적 지지와 관계가 있지만 배우자 지지와는 관계가 없다는 연구결과(Kim, Kim, & Shin, 2007)와 맥락을 같이 한다.

넷째, 다문화가족 어머니 양육스트레스 관련 변인의 상대적 영향력을 검증한 결과, 어머니의 심리적 특성요인 중 자아존중감, 우울, 그리고 어머니의 학력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어머니의 자아존중감이 양육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예언하고 있으며 그 다음 어머니의 우울, 학력의 순으로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양육스트레스는 양육자인 어머니 개인의 심리적 특성과 상관이 있으며 어머니가 부정적 정서를 가지면 부정적인 면에 집중하여 자녀조차도 부정적으로 지각하는 경향이 있고 스트레스를 더 느낀다는 선행연구(Koh, 1994; Mash & Johnston, 1990)의 내용을 지지하는 결과이다.

다문화가족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상대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 어머니의 자아존중감과 우울 등의 개인 심리적 특성 요인이라는 결과를 통해서 다문화가족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는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당사자의 심리적 특성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일반 가정의 어머니를 대

상으로 한 연구(Kwon, 2011)에서도 나타나는 결과임을 미루어 볼 때, 다문화가족을 포함한 모든 어머니들의 양육스트레스는 어머니 본인의 심리적 특성에 의해 가장 큰 영향을 받는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특히, 자아존중감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개인의 심리적 기능에 영향을 주어 스트레스를 중재하는 역할을 하는 심리적 기능으로서 다문화가족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도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다(Ju, 2010; Kim, 2012). 즉, 자신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자아존중감이 높은 다문화가족 어머니는 자신에 대해 긍정적 평가를 하면서 자녀양육으로 인한 많은 어려움도 긍정적으로 해석하여 양육스트레스를 덜 지각할 뿐만 아니라, 경험하는 스트레스에 대해서도 잘 대처할 수 있는 힘을 갖는다. 반면, 다문화가족 어머니가 자아존중감이 낮으면 다른 주요변인인 우울과 상호작용하여 자신을 더욱 무기력하게 만들며, 결국 스트레스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것을 어렵게 한다. 특히, 양육스트레스는 주관적 경험에 기초한 개념이므로 개인내적 심리적 특성인 자아존중감과 우울이 주요 영향요인이 될 수 있다.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주요변인인 어머니의 학력 또한 세 번째 논의에서 언급했듯이 자기에 대한 긍정적 평가에 작용하고 이것은 다시 자아존중감과 우울에 영향을 미치므로, 결국 스트레스 상황 지각과 실제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행동에도 영향을 주게 된다. 결국, 다문화가족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외부적 요인에 대한 관심 보다는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어머니의 개인 내적인 심리적 특성을 잘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족 어머니의 자녀양

육 스트레스 관련 변인으로 사회인구학적 변인, 어머니 개인의 심리적 특성, 배우자 관련 특성 등을 동시에 다루어서 양육스트레스와 관련된 변인을 규명하고 관련 변인의 영향력도 조사하고자 하였다. 위에서 기술한 연구의 결과를 통해 유아기 자녀를 둔 다문화가족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의 관련 변인으로 어머니의 자아존중감, 우울, 학력 그리고 결혼만족도 변인을 확인하였으며 그 중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어머니 개인의 심리적 특성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다문화가족 어머니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 서비스를 계획하고 운영할 때 반드시 고려하여야 할 것이며, 유아기 자녀의 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부모 교육프로그램에서도 어머니의 정신건강 증진을 궁극적인 목표로 다루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임을 시사한다. 특히, 거주기간이 짧을수록 우울감이 높다는 결과에 기초하여 이주 초기에 해당하는 결혼이주여성에게 더욱 세심한 배려를 하여야 할 것이다. 한국에 거주한 기간이 짧은 결혼이주여성은 문화적 혼란과 동시에 한국의 새로운 문화에 적응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개인의 심리적 특성에 영향을 줄 것이다. 이 때 한국문화에 신속하게 적응하기 위해 한국문화의 수용만을 강조하기보다 결혼이주여성의 자국문화를 소개하고 표현하는 기회를 가능케 하는 역량강화프로그램 등을 제공하여 결혼이주여성이 모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면서 새로운 문화에 적응하도록 도와주면 그들의 자아존중감을 키워주며 심리적 불안감을 적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접근은 다문화가족 어머니로 하여금 긍정적 심리적 특성을 갖도록 하게 되고 궁극적으로 스트레스를 완화시킴으로 자녀양육 행동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 기대된다.

그리고 본 연구는 어머니의 심리적 특성만큼 강력한 영향력이 있지는 않았지만 배우자관련 특성인 결혼만족도도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관련 있는 변인이라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러므로 다문화가족의 어머니의 결혼만족도를 높여서 결국 양육스트레스를 감소시킬 수 있으며 다문화가족 자녀의 건강한 발달을 지원할 수 있다. 본 연구 자료 분석에서 다문화가족 어머니의 결혼만족도는 어머니의 심리적 특성인 자아존중감, 우울 이외에 남편 양육참여 변인과 유의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배우자인 한국인 남편이 자녀양육과정에 더욱 많이 참여하여 어머니의 결혼만족도 증진에 기여할 수 있고 양육스트레스를 덜 느낄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더불어, 이러한 결과는 다문화가족 자녀양육을 위해 결혼이주여성 어머니만 대상으로 포함하기보다 아버지도 함께 교육 대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양육스트레스의 관련 변인을 조사하기 위해 인구사회학적 요인, 어머니의 심리적 특성 요인, 배우자 관련 특성 요인으로 구분하여 각 요인에 포함되는 변인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려는 시도를 하였는데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그러나, 양육스트레스에 관련된 주요변인 자녀의 변인과 사회적 지지 변인을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지 않다. 그러므로 추후 연구로 다문화가족 어머니 양육스트레스의 더 많은 부분을 설명할 수 있는 변인들의 조합을 규명하는 작업이 요구된다. 본 연구를 포함한 기존의 다문화가족 자녀양육에 관한 대부분의 연구들은 결혼이주여성인 어머니만 또는 자녀만을 포함하고 있으며 어머니와 자녀를 동시에 다루는 연구는 소수(Kwak, 2008) 있을 뿐이다. 부모와 자녀를 동시에 포함하여 부모-자녀의 상호작용

을 조사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다문화가족 변인을 찾아내는 작업이 요구된다. 그리고, 다문화가족의 자녀양육에 관한 연구는 어머니나 자녀뿐만 아니라 한국인 아버지의 영향을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것이다. 결혼이주여성은 문화적응의 어려움 때문에 일반가정 어머니보다 자녀와의 상호작용이 어렵고 어머니의 역할도 충분히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배우자인 아버지가 자녀양육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야 하므로 한국인 아버지, 더 나아가 양육을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사회적 지원체계가 포함된 연구가 요구된다.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의 어려움 중 하나는 ‘다문화’가 내포하고 있는 다양성을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추후 연구는 다문화가족의 다양성을 고려하여 어머니의 출신국가에 따른 차이를 발견하고 각 출신국가 마다의 특이성, 개별성에 기초하여 다문화가족 관련 과제에 접근하여야 한다. 본 연구는 결혼이주성인의 출신국가별 비교를 시도했을 뿐 각 국가의 특이성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는 경상북도 지역에서 표집하였으므로 다문화가족의 거주지역이 제한되어 있다. 추후연구는 출신국가 이외에도 거주지역의 차이를 반영하여 농촌지역 또는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어머니의 자녀양육 상황이나 어려움의 차이를 조사하고 그 차이를 반영한 더욱 효과적인 맞춤형 다문화가족 지원 프로그램과 지원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References

- Abidin, R. R. (1990). *Parenting stress index short form(PSI-SF)*. Charlottesville, VA : Pediatric

- Psychology Press.
- Abidin, R. R. (1992). The determinant of parenting behavior. *The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21*(4), 401-412.
- Ahn, J. Y. (2001). The effects of maternal parental beliefs, efficacy and stress on mother's parenting behavior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Korea.
- Belsky, J. (1984). The determinants of parenting : a process model. *Child Development, 55*, 83-96.
- Chang, O. J. (2010). A study on an educational program for school parents of multi-cultural family. *Journal of Korean Practical Arts Education, 23*(3), 79-99.
- Choe, H. S. (2009). Child's self-esteem : the mediational role of mother's parenting self-efficacy by child's gender.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13*(5), 245-262.
- Choi, K. S. (1992).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competency of child and the child rearing behaviors and involvement of father.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Korea University, Seoul, Korea.
- Chung, H. (2004). Application and revision of the Kansas Marital Satisfaction Scale for use of Korean couples. *Psychological Reports, 95*, 1015-1022.
- Cox, A. D., Pucking, C., Pound, A., & Mills, M. (1987). The impact of maternal depression in young people.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28*, 917-928.
- Crinic, K., & Acevedo, M. (1995). Everyday stresses and parenting. In M. H. Bornstein (Ed.) *Handbook of parenting* (2nd ed., pp. 277-297). NJ :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Jang, J. Y. (2009). Influence that marital satisfaction and fostering stress of marriage immigrating women has on the cultural adaptation.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ung Ang University, Seoul, Korea.
- Ju, M. S. (2010). The effects of mother's self-esteem and parenting stress on child's self-esteem. Unpublished master's thesis, Catholic University of Daegu, Daegu, Korea.
- Jun, H. J., Min, S. H., Lee, M. Y., & Choi, H. Y. (2009). Path of the variables to migrant women's families' health. *Korean Journal of Family Welfare, 14*(2), 5-27.
- Jung, H. Y., & Chung, O. B. (2011). The effects of maternal parenting stress and parenting behavior on the school readiness levels of preschool children in multicultural families. *The Korean Journal of Human Development, 18*(2), 277-297.
- Kang, S. J., & Sohn, S. M. (2011). A case study on the marital satisfaction and child-rearing perception of four international marriage migrant women with infants. *The Journal of Korea Open Association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16*(6), 161-188.
- Kessler, R. C., Andrew, G., Cople, L. J., Hiripi, E., Mroczek, D. K., Normand, S-L. T., Walters, E. E., & Zaslavsky, A. (2002). Short screening scales to monitor population prevalence and trends in nonspecific psychological distress. *Psychological Medicine, 32*(6), 959-976.
- Kim, D. H., Kim, S. Y., & Shin, H. J. (2007). The study on impact of spousal support and

- social support on foreign wives's parenting stress in rural areas. *Family and Culture*, 19(3), 53-78.
- Kim, H. H. (2007). Study on the circumstances and present situation of immigration through international marriage in Korea. *Minjok Yeonku*, 31, 6-49.
- Kim, J. K., & Kim, H. R. (2012). The effects of mother's characteristics and self-awareness upon parenting stress.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33(2), 129-144.
- Kim, J. Y. (2009). Parenting stress and coping style of international marriage family. Unpublished master's thesis, Ulsan University, Ulsan, Korea.
- Kim, J., Yang S., & Sung, J. (2013). The effects of paternal participation in child care and social support on planning for a second childbirth,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 of maternal parenting stress.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34, 87-102.
- Kim, K. H., & Kang, H. K. (1997). Development of the Parenting Stress Scale.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35(5), 141-150.
- Kim, K. P. (2012). Parenting stress, anger expression, self-esteem of mothers parenting adolescents. Keimyung University, Daegu, Korea.
- Kim, M. S., & Moon, H. J. (2005). Relationship between parenting stress and parenting efficacy on parenting behaviors in mother with young children.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43(8), 25-35.
- Kim, S. K. (2010). *Study on the actual condition of multicultural family in Korea*.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 Kim, Y. O., Lim, J. S., & Jung S. N.(2008). A Comparison on multi-cultural mothers' rearing attitudes according to personal variables. *The Journal of Korea Open Association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13(3), 143-164.
- Koh, S. H. (1994). Study on parenting stress perceived by mothers. *Studies on Korean Youth*, 18, 21-37.
- Kwak, K. J. (2008). Development and adaptation of children from multicultural families. 2008 Annual Convention of the The Korean Psychological Association., Seoul, Korea.
- Kwon, M. K. (2011). Parenting stress and related factors of employed and non-employed mothers with infants. *Journal of Korean Child Care and Education*, 7(2), 19-41.
- Lazarus, A., & Folkman, S. (1987). Transactional theory and research on emotions and coping. *European Journal of Personality*, 1, 141-169.
- Leaper, C. (2002). Parenting girls and boys. In M. H. Bornstein (Ed.), *Handbook of parenting* (2nd ed., pp. 189-226). NJ :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Lee, J. R. (2010). *2009 Panel study on Korean children*.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 Lee, J. S. (2007). A Study of childcare and education, fathers' childcare participation in an international marriage family. *The Journal of Korea Open Association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12(6), 21-42.
- Lee, S. M., & Lee, K. A. (2010). The effect of parenting stress and efficacy in mothers of multicultural family on their parenting behavior.

- Journal of Future Early Childhood Education*, 17(3), 71-105.
- Lee, S. S. (2005). *2005 National survey on dynamics of marriage and fertility*.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 Lim, J. H., & Lee, H. P. (2010). The influence of parenting stress on the parenting attitude and mediating effect analysis of depression in multi-cultural family mothers. *Journal of Future Early Childhood Education*, 17(2), 49-70.
- Mash, E. J., & Johnston, C. (1990). Determination of parenting stress : illustrations from families of hyperactive children and families of physically abused childre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18, 313-328.
- 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2012). *The results of foreign population survey*.
- Nam, H. J., & Lee, S. H. (2011). The effects of father's involvement in childcare on their parenting stress. *Journal of Family Relations*, 16(2), 107-121.
- Ok, K. H., & Chun, H. Y. (2012). Maternal parenting stress of infants from different income groups : the relative importance of father involvement, the marital relationship, and meanings of parenthood. *Korean Journal or Child Studies*, 33(1), 205-221.
- Park, S. Y., Doh, H. S., & Chung, S. W. (1996). *Parenting : an ecological perspective*. Seoul : Hakjisa.
- Park, Y. A. (2010). Investigation of immigrant mothers' parental experiences and teachers' childcare experiences. *Korean Journal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30(1), 197-223.
- Pope, A., MacHale, S., & Craighead, W. (1988). *Self-esteem enhancement with children and adolescents*. NY : Pergamon Press.
- Roh, Y. H. (2011). The study on the self-esteem, family support and parenting stress of married women immigrated. Unpublished master's thesis, Suncheon National University, Suncheon, Korea.
- Rosenberg, M. (1979).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image : conceiving the self*. NY : Basic-book. Inc.
- Rosenberg, M. (1986). *Conceiving the self*. New York : Basic Books.
- Schumm, W., Nicols, C., Schectman, K., & Grigsby, C. (1983). Characteristics of responses to the Kansas Marital Satisfaction Scale by a sample of 84 married mothers. *Psychological Reports*, 53, 567-572.
- Seo, H., Kim, K. E., & Kim, Y. H. (2008). A study of the factors impacting parenting stress of married Vietnamese immigrant women in Korea. *Journal of Family Relations*, 13(3), 121-143.
- Sohn, S. M. (2012). Parenting stress and related factors of employed and non-employed mothers with infants. *Journal of Future Early Childhood Education*, 19(1), 331-357.
- Song Y. J., Lee, J. O., & Kim, C. K. (2011). An exploratory study on the intention of second childbirth of mothers with and without jobs : focusing on psychological and family role characteristics. *The Journal of Korea Open Association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16(3), 185-206.

Song, M. K., Shin, H. J., & Lee, E. K. (2008). *Development of a group counseling program for parents of multicultural families*. The Korea Journal of Youth Counseling.

Vanfossen, B. E. (1981). Sex differences in the mental health effects of spouse support and equity.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20, 130-147.

2013년 4월 30일 투고, 2013년 8월 2일 수정
2013년 8월 13일 채택